

회원들 고령화에 신규가입은 늘지 않고...

고참불자들, "직장포교 이렇게"

"회원들은 자꾸 퇴직하는데 새로 가입하는 젊은 회원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직장불교단체 회원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는다. 젊은 불자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자꾸만 높아진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신입회원이 들어와야 모임이 유지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직장내 종교활동에 나서지는 젊은 직원들은 극소수라는 게 문제. 이 때문에 직장단체들의 신입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단체들은 신입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자보 홍보, 큰스님 초청법회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의 종교가 불교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1대1 면담을 통해 가입을 유

도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어떻게 신입회원을 끌어들이어야 하나. 오랜 직장생활을 하며 연륜을 쌓은 직장인불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간추려다.

직장생활 성실히 임하라

직원들에게 불교와 불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 불자회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직원들에게는 불자회의 모습으로 연상된다.

존경시청 도반회 정상현 회장은 "사람에게 받은 감동은 오래 남는다"면서 "회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곧 포교로 이어질 때가 많다"고 말한다. 회원들이 회사내 굿은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직원들에게 은연중에 감동으로 남는다는 것. 또 이웃돕기와 봉사활동 등 실천하는 불자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원들 경조사 내일치럼

종교를 떠나 가까운 직원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는 자상함이 필요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가 당사자에게는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KBS 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4년째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회원과 각 부서에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다. 회원들의 주도로 사무실에서 케이크를 절단하고 나눠 먹는다.

정종철 회장은 "케이크 하나로 불교와 부처님오신 뜻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이보다 더 좋은 포교방법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불교연구회는 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에는 사내인트라넷을 통해 축하의 글을 전달,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서, 단주로 관심

불교서적과 단주, 염주 등은 불교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 직원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거북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불교관련 서적 또는 글을 적어 주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차량에 걸 수 있는 염주나 손목에 걸 수 있는 단주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본사 반야회는 회원은 아니지만 불자인 직원들에게 불교서적을 전달하고 있다.

이순형 구도부장은 "불서를 받는 직원들은 회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많은 직원들"이라며 "불교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할 수 있고, 더러는 가입하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상담 요청엔 적극 응해야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나 인품이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장불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불교상담개발원 관계자는 직장동료들이 요청해오는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권한다. 상담 결과에 관계없이 상담자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피상담자의 경우 상담자의 생활, 사고 등 모든 면에서 다가가려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상담에 응하는 것은 포교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내 전신망 활용 필수

대부분 회사들은 사내 전신망을 갖추고 있다. 사내 전신망에는 전자결재 편만 아니라 회사 동향, 직원 동정, 동호회 소식 등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다. 이처럼 사내전신망은 직장불자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다. 불자회 소식은 물론 부처님 경구(經句), 명언 등을 올리고, 회원이 아닌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시판도 두는 배려도 필요하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주경스님은 "직접 불자회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 보다는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 간접적인 포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우리불자회는요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1987년 12월 12일, 서울은행내 불심이 깊었던 종성, 금강, 보경, 법선, 현옥, 법공 법우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불교행우회.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따랐지만 부처님 제자라는 한마음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자부심이 회원들 가슴에 가득합니다.

불교행우회는 창립이던 당시 떠나 지금이나 부처님 법을 서울은행내 직원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행이 최대 위기를 겪었던 IMF 한파도 법우들의

변도 빠짐없이 서울은행을 찾아주었습니다. 이제 안니옥 법사님은 법우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 행우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불교행우회 법우들은 그아복지 시설인 경북 상주의 효암복지센터와 인연을 맺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편 우리 문화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사할 순례를 갖고 있지요. 최근에는 원주 소재새마을과 영주 부석사 순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법우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불자로서 자신의 신행을 반추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요. 매월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회원들이 안니옥 지도법사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감원 어려움속에서도 15년전통 면면히 매월 철야정진으로 수행·친목 도모

불심을 꺾진 못했지요. 1만2천명에 이르렀던 직원이 3천5백명으로 줄었을 때도 권태중 회장을 중심으로 곳곳이 모임을 꾸려왔습니다. 물론 직원 감원바람은 불교행우회에도 몰아쳤습니다. 3백50여명에 육박했던 법우들이 1백50여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많은 법우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불교행우회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법회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구파발 거암암에서 안니옥 주지법사의 지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법회 참석인원이 10명이 안되던 절박한 시기에도 안니옥 법사는 늘 법우들과 함께 했습니다.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한

거암암사에서 철야정진을 갖고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철야정진으로 수행도 하고 친목도 도모합니다. 또 자신의 생활과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하나은행과의 합병문제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법우들은 불자회가 없는 하나은행 직원들에 대한 포교 계획을 마련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차례 불어닥칠 감원바람도 수행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리에도 빠지지 않는 부처님같은 삶을 살아가는 법우들의 마음은 한결같은 테니까요.

☞오희도 총무(안양 관양동지점)



◇원자력연구소 성불회는 16일 대전 태전사에서 '마음을 여는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원자력연구성불회·청도군 공무원 불자회 산사음악회...지역민포교 나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성불회와 경북 청도군 공무원불자회가 산사음악회를 열어 지역주민 포교에 나섰다.

원자력연구소 성불회(회장 김정수)는 16일 대전 태전사에서 '마음을 여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 개최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한 성불회는 직장동료들에게 산사의 멋과 정취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음악회는 직장동료들과 가족, 지역주민 300

여명이 동참했으며,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영산회상, 작법, 창, 청성곡 대금독주 등 불교의례와 국악으로 진행됐다. 청도군 공무원불자회(회장 채장희)는 12일 적전사에서 폐불을 곁고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공무원 불자들의 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야합창단의 육법공양과 대금 공연, 이영희 명창의 남도 민요, 지연스님의 공연 등 지역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봉영 기자

영호남 불자산악인들 지리산으로 화합산행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와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산악회(회장 김지규)는 11월 10일 지리산에서 합동산행을 갖는다. 광주불교산악회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이번 산행은 지난 5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난 8월 남해 화방산 합동산행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산행이다.

오길수 광주불교산악회장은 "같은 길을 걷는 불자들에게 이미 영·호남이라는 감정은 없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서대문구청 불자회 활동 재개

서울 서대문구청 불자회(회장 김승익)는 30일 오후 6시30분 홍은동 백련사에서 법회를 열고 활동을 재개한다. 98년 창립 이후 회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서대문구청 불자회는 이날 법회를 계기로 매월 정기법회 병행과 이웃돕기 등에 나선다.

교사불자련 경인·대구지부 합동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인지부와 대구지부는 11월 3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합동법회를 갖는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이 법문하게 될 이날 법회는 지역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단체장 동정



봉불 10주년 기념법회
박재진 경찰청 불교회장은 봉불 10주년을 맞아 31일 12시 본청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유재라 봉사상 수상
나창자 불자약사보리회 명예회장은 21일 유재라 봉사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1천만원을 약사보리회에 기증했다.



기획관리실장 전보
신동구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무회장은 21일 소비자안전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예산 수석사 참배
민철기 성북경찰서 불교회장은 20일 60여 회원 및 가족이 동참한 가운데 예산 수석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훈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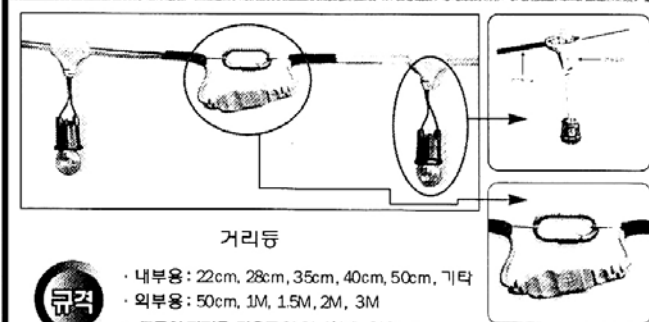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주) 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삼보전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거리등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 다양성** 사물과 범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장이 없습니다.
-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ابل

- ◆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화하므로 튼튼합니다.
- ◆ 편리성 - 연동고리가 있어 연동 설치가 용이합니다.
- ◆ 일체성 - 접촉 불량 가능성이 없습니다.

외부용 [연결고리]

- ◆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축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의 혁신적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